

현시기 반제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절실한 요구

최 종 식

반제계급교양은 우리 당이 중시하는 사상교양의 중요한 형태의 하나이다.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속에서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떠나서는 나라와 민족의 독립도 지켜낼수 없고 진보적인 사회도 건설할수 없으며 평화롭고 자주적인 새 세계도 건설할수 없다.

반제투쟁을 멈추는것은 후퇴를 의미하며 후퇴는 곧 패배를 가져오는 법이다.

사람들을 높은 반제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썹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자면 반제계급교양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가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고있는 조건에서 사람들속에서 반제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현시기 반제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우리 혁명의 절실한 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되기때문이다.

사회주의수호전에서의 승패는 반제계급교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사회주의에 의해서만 훌륭히 실현될수 있다. 사회주의는 그 무엇에도 예측되거나 구속되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한 리념 다시말하여 사회적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숭고한 리념이며 인류의 리상이다. 그러므로 인류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사회주의에로의 길은 새롭게 개척해나가야 하는 전인미답의 길이며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속에서 전진하여야 하는 준엄한 혁명의 길이다. 더우기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와 온갖 사회주의원썹들과의 심각한 정치사상적대결이며 치렬한 계급투쟁이다.

원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원썹들과의 첨예한 투쟁을 통하여 발생발전하여왔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는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속에서, 겹쌓이는 난관과 준엄한 시련속에서 태어나고 일떠섰으며 불패의것으로 공고발전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우리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따라 우리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우리 식 사회주의, 주체의 사회주의이다. 우리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인 주체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보장하는 민족자주의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생활이며 사회주의를 떠나서는 우리 인민이 또다시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그러기에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고 하는것이다.

우리 인민이 사느냐 죽느냐 다시말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느냐 아니면 남의 노예가 되어 천대와 멸시를 받느냐 하는것은 사회주의를 지키는가 못지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첨예한 계급투쟁이며 이 투쟁을 떠나서는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없다.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이며 침략의 원흉인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허물어보려고 날로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으며 온갖 추종세력들이 미제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에 합세하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은 우리 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 심대한 난관을 조성하며 조선반도와 그 주변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사이의 치열한 대결전장으로 되고있는것은 바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사회주의의 보루이며 자주와 정의의 성새인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최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을 파괴하고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들고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저들의 더러운 기도가 실현될수 없게 되자 비렬한 《인권》소동에 매달리고있다.

그러나 인민의 조국인 우리 공화국, 일심단결의 우리 사회에 대하여 그런 허망한 꾀변으로 비방증상하려드는것은 언어도단이며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격분을 자아낼뿐이다.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을 그만두지 않고 정치, 경제, 사상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며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기 위한 적대세력들의 도발책동이 계속되는 오늘 이에 대처하여 반제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주체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수들의 발악적책동이 계속 감행되고있는 조건에서 반제계급교양을 소홀히 한다면 적들앞에서 사상적으로 무장해제될수 있다. 그런것만큼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언제나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예리한 계급적관점과 립장을 견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반제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것은 혁명운동의 본성적요구이며 혁명가의 중요한 표징이다.

반제계급의식이 높고 계급적관점과 립장이 확고하여야 적아를 똑똑히 구별해볼수 있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지킬수 있으며 제국주의와 온갖 계급적원수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만일 혁명하는 사람들이 반제계급의식이 낮고 계급적관점과 립장이 바로서지 못하면 적들의 책동을 가려보지 못하고 거기에 말려들수 있으며 난관과 시련앞에서 동요하고 변질되어 나중에는 투항과 배신의 길에 굴러떨어질수 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유일초대국》이라고 하는 미제와 직접 맞서 총포소리없는 전쟁을 하고있으며 제국주의와 반동들의 포위속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지켜 싸우고있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발악적공세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반제계급교양을 떠나서는 사회주의수호전에서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나라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람들속에서 반제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비난과 중상, 와해전복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리념과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고 나라의 영예와 존엄을 지켜내는 비결은 근로자들속에서 반제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는데 있다.

반제계급교양을 더욱 심화시키고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현시기 반제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우리 혁명의 절실한 요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새 세대들을 반제계급투쟁의 견결한 투사로 키워 우리 혁명의 대를 곳곳이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반제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와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은 세대에 세대를 이어 계속되며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야 하는 간고한 투쟁이다.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가기 위해서는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갈 새 세대들을 잘 키워야 한다. 혁명의 장래운명은 새 세대들이 어떻게 교양육성되며 준비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새 세대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그들을 각성시키지 못하면 제국주의들과 반동들의 반혁명적공세를 막아낼수 없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혁명의 세대가 교체되는 기회를 리용하여 젊은 세대들을 동요시키고 사상적으로 변질시켜 혁명의 대가 이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책동을 다 한다. 제국주의들과 반동들이 흑백을 전도하는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면서 혁명의 3세, 4세들을 노리고 썩어빠진 부르조아사상문화를 쉬임없이 들이밀고있는것도 새 세대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들어 그들이 혁명을 포기하고 혁명의 길에서 물러서게 하기 위해서이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적들의 반혁명적책동이 계속되는 한 반제계급투쟁도 중단함이 없이 계속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세대가 바뀌고 우리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이 전례없이 로골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새 세대들을 반제계급투쟁의 견결한 투사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힘을 넣어야 한다.

새 세대들을 반제계급투쟁의 견결한 투사로 키워야 그들이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수들을 끝없이 미워하며 혁명의 원수들과 끝까지 싸울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전세대들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다.

새 세대들을 반제계급투쟁의 견결한 투사로 키우자면 그들속에서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한시도 늦출수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더우기 착취와 압박에 대하여 말로만 듣고 전쟁의 엄혹한 시련을 겪어 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우리 혁명대오의 주력을 이루고있는 오늘날 반제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적들이 속에 칼을 품고 달려드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새 세대들속에서 반제계급교양을 약화시킨다면 그것은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것과 같다. 그런것만큼 조성된 정세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새 세대들속에서 반제계급교양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하여 그들이 제국주의 특히 미일제국주의에 대하여 그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말며 적개심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다. 적에 대한 털끝만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자기의 계급적본분과 처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혁명을 중도반단하게 되며 나중에는 혁명을 망쳐먹게 된다. 그러므로 새 세대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회유기만책동에도 현혹되지 말고 혁명위업을 완성할 때까지 반제계급교양을 계속 완강하게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반제계급교양에서 특히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신천을 비롯한 공화국북반부의 수많은 지역들에서 미제살인귀들과 계급적원수들이 감행한 야수적만행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미제는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며 우리 혁명의 주되는 투쟁대상이다.

백수십년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해온 미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 2개월도 못되는 기간에 신천군에서만도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3만 5 000여명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수적인 방법으로 무참히 학살하였다.

미제가 신천땅에서 감행한 대학살만행은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인간살육을 도락으로 삼는 식인종이며 살인마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70년간 민족분렬의 고통을 들썩워온 기본장본인이 바로 미제국주의이다.

새 세대들이 미제의 도발과 침략책동에 경각성있게 대하며 적들과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나가도록 하자면 그들이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오늘날에 와서 그 수법이 더욱 음흉하고 교활해지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미제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미제와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으며 적들과는 끝까지 맞서 반드시 결판을 내교야말겠다는 굳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투철한 반제적립장을 견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새 세대들속에서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이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감히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산악같이 떨쳐나 침략자들을 단호히 짓밟개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할수 있으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

새 세대들속에서 반제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반제계급투쟁의 견결한 투사로 키울 때 새 세대들이 자기의 근본을 잊지 않고 우리 혁명의 대를 곳곳이 이어나갈수 있다.

우리는 반제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우리 혁명의 절실한 요구라는것을 잘 알고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의 불패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